

역사적 사실 토대로 재구성한 허 준의 참모습

《조선사람 허준》 펴낸 신동원 교수

허 준에 대한 본격적인 평전인 이 책은 드라마와 소설이 만들어진 '허 준 신화'를 해체해 허 준의 실상을 보여준다. 또한 《동의보감》의 학술적 가치를 꼼꼼히 분석함으로써 허 준 의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신교수는 《동의보감》이 단순한 의서가 아니라 자연관과 생명관이 뒷받침된 사상서라고 말한다.

신동원 교수(41, 한국과학기술원)가 펴낸 《조선 사람 허준》(한겨레신문사)은 허 준에 대한 최초의 평전이다. 이 책에 따르면, 지금껏 TV 드라마와 소설을 통해 알려진 허 준과 허 준을 둘러싼 이야기는 대부분 가짜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TV 드라마와 소설에서 역사적 진실은 '허 준이 의원이다'는 사실밖에 없다. 신교수는 이 책에서 허 준을 둘러싼 무수한 신화의 안개를 걷어내고 진짜 허 준의 모습을 되살렸다.

시체를 해부하는 허 준은 허구

"허 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드라마 <허준> 방영 이후 허 준에 대한 그릇된 사실이 역사적 진실인 양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여년 동안 과학사를 연구하다 보니 허 준이 그 역사적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받고 조명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책은 먼저 사서의 기록을 토대로 드라마가 유포한 허 준에 대한 그릇된 '소문'을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한다.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인, 허 준이 죽어가는 스승의 몸을 해부하는 장면은 한 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허 준은 시체를 해부한 적이 없다. 《동의보감》에 실린 해부도인 <신령장부도>와 <오장도>는 중국 책에 실린 것을 옮겨놓은 것이다. 또한 드라마에서 허 준이 난치병 위암인 '반위' (反胃)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반위는 위암이 아니라 단지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증상의 병일 뿐이다.

신교수는 허 준의 생애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도 바로잡고 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처럼 유의태는 허 준의 스승이 아니며 의과에 급제한 적도 없다. 유의태는 실존 인물이지만 허 준 사후 1백년 후의 인물이다. 그리고 허 준은 처음부터 내의원 행정관직 가운데 두번째 높은 종4품에서 벼슬을 시작했다.

이어 신교수는 허 준의 참모습을 생애와 의학, 그리고 학문으로 나눠 규명한다. 신교수는 허 준이 의학에 몸담게 된 원인을 허 준이 서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의학과 유학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허 준은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했으며, 내의원이나 전의감 같은 관아에서 의학을 익히지 않았다는 것이 신교수의 주장이다.

동의보감은 동아시아 최고의 의서

몇 줄 안되는 역사적 기록을 실마리 삼아 신교수는 허 준의 인간 됬됨이까지 그려보인다. 이 책에서 신교수가 그려보이는 '인간 허 준'은 드라마와 소설이 그린 '다정다감한'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신교수는 허 준이 "충민하면서 학문을 좋아했다"는 기록에서 머리가 좋고 행동과 판단이 빠르며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인물이었음을 짐작하고 선조의 피란길을 따라나선 허 준의 모습에서 강한 의리의 인물을 본다. 그리고 《동의보감》을 편찬하라는 선조의 명을 받고 14년만에 임무를 완수한 허 준에게서 '학문을 향한 집념'을 읽어내기도 한다.

신교수가 이 책에서 특히 열정을 쏟은 부분은 《동의보감》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해명이다. 신



교수는 허 준 필생의 업적인 《동의보감》이 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허 준이 《동의보감》 집필을 시작한 때부터 출간까지, 그 과정을 꼼꼼히 더듬으면서 설명한다. 그는 《동의보감》이 "당시 동아시아 의학의 정수만을 가려 뽑은 최고의 의서"라고 평가한다. 또한 신교수는 《동의보감》이 다른 의서와 달리 고도의 자연관과 생명관이 뒷받침된 사상서라고 덧붙인다.

"한국의학사는 《동의보감》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동의보감》은 독보적인 저작이죠. 《동의보감》은 이전의 의학서와는 달리 '병'이 아닌 '몸'을 중심에 놓고 의학의 내용을 정리했죠. 병증을 보면 처방이 나오고 처방을 보면 그 약에 부합하는 병증이 나오도록 병증과 치료법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것 역시 이전의 의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시도였습니다."

우리 의학사를 더듬는 신교수의 작업은 한의학이 근대에 들어와 민중의학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을 서술한 《한국근대의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그의 관심을 불러들여 맨 인물이 있는데 바로 지식영이다. 신교수는 곧 《지식영 평전》(가제)을 통해 지식영의 정치가적 면모를 탐구해볼 작정이다. - 최갑수 기자